

우리는^o

83년 송창식은 소리 없는 침묵으로 말할 수 있다 했지만, 그건 송창식이 지나긴 하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이겠지 홀로 사는 사람에게, 방 한 칸 고시원에서도 온갖 소리가 난다는 걸 송창식은 몰랐을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, 늦은 저녁 누군가 옆 방문을 여는 소리,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 소리, 창문 너머 오토바이가 힘차게 달리는 소리, 이어폰 너머로 흐르는 송창식의 노랫소리 거기서는 침묵도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송창식은 알았을까 그러나 우리들의 불문율은 침묵 엄격한 규칙 아래 침묵을 지켜야 하지 누군가를 데려와서도 안 되고 밤늦게 사랑하는 애인과의 전화 밀담도 안 되지 다 이렇게 산다지 이게 세상 서울 소리라지만 송창식도 지나긴 세월을 이렇게 견뎠을까 우리는 길가에 돌 차면서도 웃었지 돌이 데굴데굴 굴러가는 게 웃겨서, 지나긴 겨울밤을 지나오면서, 돌 하나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. 이런 게 기쁨이 될 수 있다니, 송창식이 웃으며 나를 본다 송창식이 우리는 괜찮다고 한다 몇 번이나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저녁 오래 골목을 돌았지 그때 우리는 빛의 파수꾼 골목의 파수꾼 기쁨이건 슬픔이건 앞다투어 우격다짐할 때 나는 너의 여린 발목을 본다 송창식은 알았을 것이다 돌아서면 내가 하는 다짐들 다신 보지 않겠다고, 그러나 그 소리 없는 침묵 가운데 우리

o 1983년 발표한 송창식의 노래.